

## 중추 육성과정의 중요성과 산란 성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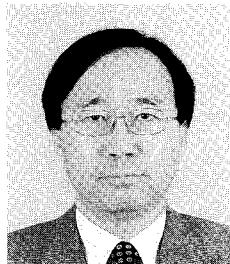
# 중추의 체중관리와 산란성적은 정비례

**산**란피크 올라가는  
것이 영 이상하여  
걱정이 많다. 산란피크가  
잘 올라가다가 그만 주춤  
주춤하더니 더 이상 올라  
가지 않고 벌써 내려가기  
시작한다? 피크 자체가  
아예 80%선에서 머물러  
안타깝다. 피크는 그런대

로 올라 갔지만 피크 후 너무 빨리 산란율이  
내려가고 있어 실망이다. 산란율은 그런대로  
괜찮으나 난중이 불만이다. 등등… 산란성적  
에 대해 항상 아쉬움이 많고 만족이 안 된다.  
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? 당장 산란하고  
있는 계군에다 영양제, 생균제를 급이하는  
등 많은 조치를 해 보지만 사실은 큰 효과가  
없다. 그 핵심은 대부분이 산란중인 닭에 지금  
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전인  
그 계군의 육성과정에 원가가 잘못된 것이다.

## 1. 중추 육성의 중요성

세 살 벼룩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의 속담  
처럼 중추를 강건하게 키운다는 것은 매우



안 형 진  
(주)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

중요하다. 아니 산란성적  
을 좌우하는 열쇠이다. 기  
초를 튼튼하게 해 놓으면  
산란을 잘하여 성적 좋고  
수익이 좋지만 그렇지 못  
하면 1년 내내 고생이면  
서 영양제 비용은 비용대  
로 들어가나 그 결과 또  
한 만족치 못하여 손해가

이만 저만이 아니다.

우수한 산란성적을 위해서는 중추 육성을  
잘 해야 한다.

지금의 산란성적 불만에 불편해 할 것이  
아니라 그 이전인 중추과정을 다시 한번 점  
검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 
하여야 한다.

특히 5주령의 체중과 산란성적과는 매우  
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육성과정이 얼마나  
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직감할 수 있다(표  
1 참조).

가능한 한 5주령 이전에 체중이 품종 고유  
목표 체중 보다 상회하여야 한다.

빠른 속도로 육종 개량된 요즘 품종의 고  
유 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5주

령 이전에 품종 고유의 목표 체중을 초과하여야 한다. 하지만 연속되는 백신 접종으로 5주령 이전의 체중 초과는 만만치 않다. 그러기 위해선 환경 및 사양 관리가 잘 되어야 하며 영양수준이 높은 사료를 급이하여야 한다.

흔히 이런 사

료의 사료 단가만 보고 비싸다고 사용을 꺼려하지만, 산란성적을 생각해 본다면, 또한 이 때는 사료 섭취량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, 큰 부담이 아니다. 과감히 투자하여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하여야 한다.

난중도 체중과 가장 상관관계가 많으므로 더더욱 체중을 잘 맞추어야 한다.

표1. 5주령의 체중과 산란피크 지속기간

5주령의 체중	90%이상 산란주령
290g(미달, 일반적)	26~35주령(10주간)
400g(3~4% 초과)	25~38주령(14주간)

## 2. 중추를 강건하게 키우자.

중추를 강건하게 육성하는 것은 산란 기간인 최소 1년간의 수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. 이 시기에는 아무리



노력을 기울여도 지나치지가 않는다.

### 1) 철저한 체중관리

체중관리는 우수한 균일도 만들기와 품종 고유의 목표 체중 초과이다(3~5%). 중추를 고르게 키우는 것이 대규모 사양이다 보니 종전보다 더 어려워 졌다.

하지만, 체중이 큰 것과 작은 것을 엄격히 선별,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어야 한다. 아울러 급이기, 급수기가 충분하여 과도한 경쟁 없이 충분히 먹도록 해 주어야 한다.

체중 성장은 일반적으로 목표체중에 미달되다가 10주령을 전 후에 대개 목표체중을 초과하게 된다.

하지만, 우수한 성적을 위한 닭의 골격은 이미 5주령 이전에 결정된다. 더군다나 요즘은 육종의 발달로 품종이 더욱 개량되어 이

5주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. 따라서 3주령 이전에 평균체중이 품종 고유 목표체중을 초과하여야 한다.

백신접종등 스트레스가 많아 체중초과는 쉽지 않으나,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. 갓난병 아리사료 급이, 물 및 사료 섭취 늘리기, 최적 환경 만들어 주기등 정말 많은 노력을 접종 해야 한다.

사료를 교체 할 때나, 체중관리를 위해 매주 체중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 사료 급이량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.

요즘은 전자저울로 체중을 달면 손쉽게 적은 시간 투자로도 정확히 달 수 있고 그 분석 또한 쉬우며 그 결과를 저장하여 보관 할 수도 있다.

직접 육성을 하지 않고 중추를 구입 할 때에는 반드시 중추가 도착되었을 때 체중을 측정 한 후에 반품 또는 하차를 결정하여야

한다. 만일 평균체중이 주령에 비해 미달이면 주령이 늦은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.

## 2) 철저한 백신 접종 및 항체가 관리

정해진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접종하며, 백신보관도 철저히 하며 접종도 정확히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한다. 그리고 백신접종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2주후에 반드시 혈청검사를 믿을 수 있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형성된 항체기를 확인하여야 한다. 이 때 부족하면 보강 접종 계획을 수립, 시행 한다.

그리고 이 혈청 검사는 반드시 최소 2개월 간격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그리고 검사결과는 반드시 한곳에 모아 연속적인 흐름이 파악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흔히 농장에서는 바쁘니까 이상없더라 하는 것만 기억하고는 구체적인 숫자는 몇 달

지나다 보면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. 어떤 상황이 일으났을 때 그 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늦다. 미리 미리 연속적으로 혈청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, 유지하여 흐름을 봄으로써 질병감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대처하여야 한다. 양계

